

2015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
2015 Christmas Service with Neighbor Religions

- 구원. 해탈. 일원의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들 -



일시: 2015 년 12 월 13 일(주일) 오후 5 시
장소: Assembly Hall,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2015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 구원. 해탈. 일원의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들 -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Contemplation) ----- 다함께

한마음 한노래(성탄시 Christmas Poem) ----- 낭송: 윤지영

“아기 예수의 소원”(“Baby Jesus' Best Wishes”) (시, 정연복) - 3p

한마음 한노래(노래 Song) ----- 다함께

“아름다운 사람”(“Beautiful One”) (노래, 김민기) - 4p

퍼포먼스 - '구원' (Performance on 'Salvation') ----- 영상: 대니 & 퍼포먼스참여: 동인 해나 대니 우승

"구원은 결국 사랑입니다" ("Salvation is Love")

구원. 해탈. 일원의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독경 (Chant of Buddhism) ----- 도암 스님

“반야심경”(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The Heart of Perfect Wisdom) - 6p

불교 법문 (Dharma Talk of Buddhism) ----- 도암 스님 (맨하탄 조계사)

원불교 설법 (Dharma Talk of Won) ----- 연타원 김호철 교무님 (원불교 미주 총부)

천주교 강론 (Preach of Catholic) ----- 조 스테파노 신부님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개신교 말씀 (Sermon of Protestant) ----- 김동균 목사 (작은자공동체교회)

영상 (Short Film) ----- 제작상영: 대니

"구원, 해탈, 일원의 길 위에서 함께 한, 2015 여름 이웃종교 연합수련회"

한마음 한노래(노래 Song) ----- 다함께

“내 사람이여”(“My Dear”) - 7p

이웃종교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탄기도(Christmas Prayer toward World)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성탄시 Christmas Poem)

아기 예수의 소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예수입니다

제게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가 태어난 날을

요란하게 축하하지 말아요

저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려고

궁리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물건에는 욕심이 없고

오직 사랑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저를 아끼고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파릇파릇 움트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제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세요.

거창하고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작지만 깊고 진실한 사랑

세상의 가난하고 쓸쓸한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의 씨앗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 밭에 심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세상만이

나의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며

나의 존재의 전부이니까요.

올해 성탄절에는

제 소원을 꼭 들어지실 거죠?

(시, 정연복 - 낭독: 윤지영)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Song)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작사 작곡

어 두 눈 비 내 - 려 오 면
람 눈 불 - 어 오 면
는 내 - 려 오 면

처 마 밑 에 한 아 이 울 고 서 있 네
들 - 판 에 한 아 이 달 - 려 가 네
산 - 위 에 한 아 이 우 독 서 있 네

그 맑 은 두 눈 에 빛 물 고 이 면 음 -
그 더 러 가 숨 에 노래 을 리 면 음 -
그 고 러 마 음 에 노래 을 리 면 음 -

- 아 름 다 러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새 찬 바
- 아 름 다 러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새 하 얀
- 아 름 다 러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Songbird.co.kr

퍼포먼스 - '구원' (Performance on 'Salvation')

"구원은 결국 사랑입니다" ("Salvation is Love")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라이브(Live)입니다!" "구원은 현재 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신앙, 신념, 가치관, 생각, 사상, 고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참된 삶이며 그 삶의 나눔입니다
얇은 자기를 찾는 길이며 그 길은 결국 구원으로 향하는 것 입니다
구원은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다

구원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실천, 수행입니다
구원은 삶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흑인 청년이 경찰 폭력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그 청년을 위해 정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은 작은자들의 함께 일어섬 입니다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천주교,개신교)인들에게는 구원이,불교인들에게는 해탈이, 원불교인들에게는 일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사랑입니다

구원은 삶의 나눔입니다
구원은 사랑이 되어 핏줄처럼, 신경처럼, 우리의 뼈와 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필요합니다
구원은 결국 사랑입니다
구원은 결국 사랑입니다

(영상제작: 김웅 & 퍼포먼스참여: 동인 해나 김웅 우승)

구원. 해탈. 일원의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독경(Chant of Buddhism)

“반야심경”(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The Heart of Perfect Wisdom) – 독경: 도암 스님 (맨하탄 조계사)

摩訶般若波羅密多心境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 五蘊皆空度 一切苦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 오온개공도 일체고역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사리자 지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陀依 般若波羅密多 故 心無(가)碍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심무가애
無(가)碍故 無有空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
密多 故得阿縵(누)多羅三漢三菩提 故知 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밀다 고득아늑다라삼막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 一切苦 真實不虛 故說 般若波羅密多呪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卽說呪曰, 즉설주왈,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婆訶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3)

The Heart of Perfect Wisdom

Homage to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lovely, the Holy!

Avalokita Bodhisattva was moving in the deep course of the wisdom which has gone beyond.
He looked down from on high and saw but five skandhas which, in their own being, were empty.

"Here, O Sariputra,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

Form does not differ from Emptiness, Emptiness does not differ from Form;

whatever is Empty, that is Form, whatever is Form that is Empty.

The same is true of feelings, perceptions, impulses and consciousness.

O Sariputra, all dharmas are marked with Emptiness, they have no beginning and no end,
they are neither imperfect nor perfect, neither deficient nor complete.

Therefore, O Sariputra, in emptiness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perception, no name,
no concepts, no knowledge. No eye, no ear, no nose, no tongue, no body, no mind;
no forms, no sounds, smells, tastes, touchables or objects of the mind, no sight organ,
no hearing organ and so forth to no mind consciousness element; no ignorance or
extinction of ignorance or extinction of ignorance, no decay and death, no extinction of decay and death.
There is no suffering, no origination, no stopping, no path, no cognition, no attainment, nor anything to attain.
There is nothing to accomplish and so Bodhisattvas can rely on the Perfection of Wisdom without trouble.

Being without trouble, they are not afraid, having overcome anything upsetting, they attain Nirvana.

All Buddhas who appear in the three periods, fully Awake to the utmost, right and perfect enlightenment
because they have relied on the Perfection of Wisdom.

Therefore, one should know the Perfection of Wisdom is the great mantra, is the unequalled mantra,
the destroyer of suffering. Because of this Truth, listen to the mantra:

Gate, Gate, Paragate, Para Samgate Bohisvaha Gone, Gone, Gone beyond, Gone utterly beyond

Oh, what an Awakening!

한마음 한노래(노래 Song)

내 사람이여

백창우 작사·곡

C Am F C/E C/F C/E Dm G#3 G#1
 내 가 너 의 어 - 둠 을 밝 혀 줄 수 - 있 - 다 면 빛
 아 - 품 을 만 저 줄 수 - 있 - 다 면 이름
 사 - 랑 이 될 - 수 - - 있 - 다 면 노래
 F C Am7 F Gsus4 G
 하나 - 가 진 작 은 별 - - 이
 없 는 - - - 들 의 꽃 - - 이 되 어 도 좋 - 겠 네
 고운 - - - 한 마 리 - 새 가
 C Am F C
 너 가 는 길 마 다 - 함 께 다 니 며 너
 음 눈 물 이 고 인 - 너 의 눈 속 에 슬
 너 의 새 - 벽 을 - 날 아 다 니 며 내
 F C G C
 의 길 - 을 비 취 주 겠 네
 끈 춤 으 로 흔 들 리 겠 네
 가진 시 - 를 들 려 주 겠 네
 F C G F
 그 렬 - 수 있 다 면 그 렬 - 수 있 다 면 내 가 - 난
 이 - - 토
 C G F G C D.S.
 한 삼 - 과 영 혼 - 을 - 모두 주 고 - 싶 - 네
 특 더운 사 랑 하 나 - 로 - 네가 숨에 묻히 고 - 싶 - 네
 C Dm G F C
 그 - 렬 수 있 다 면 그 렬 수 있 다 면
 C Dm F G C
 네 삼 의 - 끝 자 리 를 지 - 키 고 싶 - 네
 C Dm G F C
 내 사 - - 랑 이 여 - 내 사 - - 랑 이 여 -
 C Dm F Gsus4 C
 너 무 멀 - - 리 서 - 있 는 내 사 랑 - 이 - 여 -

이웃종교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탄기도
Christmas Prayer toward World with Neighbor Religions

하느님,

스님들과 법우님들, 교무님들과 교우님들, 신부님과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성탄예배에 모두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이웃종교들은
신앙의 대상, 전통, 수행방식이 다르고
신앙과 진리의 모양과 빛깔이 다름을 잘 알지만
이 다름을 넘어서서 이렇게 개신교의 성탄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해탈, 일원의 신앙과 진리수행의 길을 각자 걸으면서도
동시에 이웃종교의 신앙과 진리가 이웃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고 고유하고 위대한지 알기에,
내 진리, 내 신앙처럼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배우고 나누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구도의 길 위에서
진리의 등불, 자비와 사랑, 마음에 품고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 어둠과 탁함이 있는 곳
함께 찾아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밝히고, 함께 맑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구원, 해탈, 일원이 실현되고,
자비와 사랑, 정의와 평화 넘실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런 아름다운 세상 이를 수 있길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아멘